

# ‘쓰테크’ 열풍 무인회수기 확산…참여 유도 ‘톡톡’

&lt;쓰레기+재테크&gt;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5년

(중)활성화 대안주목

“적은 금액이지만, 모이면 꽤 쓸쓸해 주우우다닌 적도 있죠. 버리려 오면서 운동도 되고요.”

18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 주차장 한 쪽에 줄을 서 있는 이들은 너도나도 무언갈 들고 있었다.

성인 남성 몸통만 한 비닐봉지부터 수레 형태의 가방 등 각양각색이었으나, 그 안에는 모두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등이 들어 있었다.

잠시 후 줄의 맨 앞 사람이 전자기기 화면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재활용품을 하나둘씩 넣어 내부에선 ‘과직’하고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가지고 온 것들을 모두 투입



2019년 9월 서구 상무시민공원 첫 도입  
올해 11월 기준 광주에 118대 설치돼  
네프론·캔가루·에코프렌즈 회수율 ↑  
혜택 상이·지역별 설치율 차이 불만도 ↑

배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 9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

10개를 교환해도 100원이지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으로 인해 “어차피 버릴 거 돈으로 바꾸자”라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관련 시장도 넓어지면서 네프론 외에도 ‘캔가루’와 ‘에코프랜즈’ 등 무인회수기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 같은 흐름에 광주 5개 자치구는 무인회수기 도입을 늘려왔고 지난달 기준 광주에는 총 118대(▲동구 45대 ▲서구 26대 ▲남구 18대 ▲북구 19대 ▲광산구 10대)가 설치돼 있다.

회수기 종류는 캔가루가 9대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네프론 22대, 에코프렌즈 21대다.

기기별로 보상 정책은 조금씩 다르다. 캔가루와 에코프렌즈는 각각 1개당 20원, 50원을 지급하며 이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구입하기 위해선 네프론과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인회수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지역 내 기기 3개 전체에 대한 회원 가입자는 2021년 1만5천608명에서 2024년 10만2천639명으로 3년 사이 6.5배 이상 뛰었다.

회수량도 늘었다. ▲서구 2023년 2만3천236kg → 2024년 3만2천531kg ▲남구 2021년 14만5천104kg → 2024년 20만2천54kg ▲동구 2021년 3만3천342kg → 2024년 3만7천730kg ▲북구 2023년 1만5천880kg → 2024년 4만500kg으로 모두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년 12월 최초 도입한 광산구의 경우 지난 해 8천944개를 수거했는데 올해는 1~10월에만 1만3천366개가 회수되는 등 전년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무인회수기는 보상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지역별 설치 현황 차이와 업체별 혜택이 상이한 데서 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 수요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순차 도입하고 있다”며 “보상 정책은 업체에서 정하는 거라 개인이 어렵지만,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할 기기는 자치구끼리 협의해서 통일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 단속을 실시한 18일 동구 세종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광주경찰, ‘숙취운전’ 13건 적발

1시간만 정지 7건·취소 1건

훈방 조치 5건…“상시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경찰청이 실시한 오전 음주 단속에서 1시간 만에 숙취운전자 대거 적발됐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8시 일선 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취약 지역 곳곳에서 숙취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이들은 7명 적발됐다. 이 외에도 취

소1건과 훈방5건이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쁜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 후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선 음주 교통 사고로 총 15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명, 2023년 4명, 2024년 3명이다. 올해는 아직 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돌입하나  
오늘 오전 11시 회의 거쳐 결정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를 놓고 총파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에서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 지부장들이 참석해 최근 교섭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되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파업을 전격 유보한 바 있다. /윤찬웅 기자

## 장애인 직원 돈 편취·성폭력 무고 종용 50대 ‘실형’

법원, 징역 3년 선고

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이 탄로나자 A씨는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자며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

이후 B씨는 실제 광주 지역 일선 경찰서에 C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던 A씨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무고교사 행위로 C씨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북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명 절회

인사청문 ‘부적격’ 의견 반영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신분으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절세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과 북구의원 신분이었던 2020년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공개사과 징계 처분을 받은 것 등이다.

이에 북구공무원노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북구 관계자는 “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지역 사회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사장 공백 상황에서도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과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지역사회 여론을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부수 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